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23, 2014 Vol. 456

E-mail : chdailya@gmail.com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26일 주님세운교회에서 종교개혁기념예배

오는 20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LA 교계 지도자들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교계 원로 정시우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김영대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해, LA 지역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뿐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간증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20일 한인타운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미주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0월 26일 종교개혁 49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에 기념예배를 오전 11시 30분 주님세운교회에서 드린다. 설교는 미성대학교 류종길 총장이 맡았다.

곧 이어 11월 하순경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 세미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다양한 신학 세미나를 분기마다 개최한다. 2015

년 사순절에는 특별히 ‘루터’에 관한 세미나를 연다.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 컨테스트도 열어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특히 한인 2세 목회자들의 참여를 적극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500주년이 되기 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 공동 예배문을 작성해 LA 지역 한인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하

나되는 장도 마련하려 한다. 김영대 목사는 현대 교회의 권위 추락 문제를 지적하며 “목회자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신뢰도 상실을 통탄하며 다시 회복되는 개신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상명 목사는 “한인교회가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매몰돼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모든 교회가 연대, 연합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최아브라함 목사는 “3년간 열심히 준비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며 정시우 목사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주님세운교회에서 드리는 종교개혁주일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향후 남가주 지역의 교회연합단체, 각 교단의 지도자 및 원로, 각 분야의 신학자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이 운동을 전 한인교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OC 지역의 평신도들이 아프리카 어린이 돋기에게 뜻을 모아 연합성가제에 참여했다.

“단 3센트면, 한 어린이에게 한 끼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4회 연합성가제 개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0월 19일 저녁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제34회 연합성가제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7개 교회 찬양대와 3개 어린이청소년 단체가 참여했다. 찬양제 수익금은 아프리카 사랑재단(김용진 선교사)에 전달해 말라위의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말라위 결식 아동의 하루 한 끼 급식 프로그램을 지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김용진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감사 동영상을 통해 “아프리카 여러 지역 감옥의 재소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옥수수 등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것으로 이웃학교 결식 아동들에게 영양죽(치콘디팔라)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사이면서 형사법 관련 박사이기도 한 김 선교사는 넬슨 만델라의 초청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교회 및 형사법 관련 지원을 하던 중 아프리카 전 지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목도한 이후 지

금까지 수년간 ‘사랑의 죽’(Crops of Love)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3센트면 한 어린이에게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3만여 어린이가 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김 선교사는 “이를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남가주 성도들의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연합회 회장 신복수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6.25 사변 당시 굶주림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번 찬양제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일에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보내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온전 통증을 가진 평신도 연합회가 찬양제를 통해 뜻깊은 일을 감당한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대표기도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한창훈 장로 문의) 213-500-5449

김나래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 (좌측부터) 심명구 총무, 이상명 공동회장, 김영대 준비위원장, 정시우 대표회장, 최아브라함 협력위원장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CHRISTIAN MUTUAL MED-AI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벌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 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해산의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 나가자

파사데나장로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드려

올해로 13살을 맞은 파사데나장로교회는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호년 담임목사와 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쓴 편지처럼,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었다.

최 목사는 갈4장 19-20절을 본문으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설교에서 “다시”라는 말 만큼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목사는 갈4장을 인용하며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복음이 들어왔다.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다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산의 수고가 없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파사데나장로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최호년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없다.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뤄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하자”고 권면했다.

19일 정오에 드려진 창립기념예배는 자녀들과 성인들의 합동예배로 드려졌다.

이후 열린 환영의 시간에는 최호년 목사와 사모를 함께 축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훈훈한 교제를 나누었다. 최 목사는 “파사데나장로교회에 지난 1년간 많은 아픔이 있었지

만, 올해 창립 13주년에는 하나님께서 아픔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음과 본질을 불들고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고 말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 최호년 목사가 부임한 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 아래 전 교인이 하나님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영인 기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부에나팍에 위치한 건강한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새롭게 세웠다.

건강한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시무장로와 명예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각각 임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병의 담임목사의 사회로 19일 드린 임직예배는 1부 예배, 2부 임직식, 3부 축하와 권면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는 벤전4장 8절-11절을 본문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

는 설교에서 “오늘 임직하는 분들은 청지기이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목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성도들의 허물을 볼 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자가 청지기”라며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길을 늘 살피며 교회를 충

성되게 섬기라”고 전했다.

2부 임직식에서 4명의 장로와 2명의 명예장로, 1명의 안수집사, 3명의 권사를 각각 임직했다.

권면을 전한 박명석 목사(예성 서북노회 증경노회장)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 계급이 아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했다.

오병의 목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길 소망한다”며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했다. 임직자 명단은 시무장로에 김규진, 신진복, 이중열, 허종선, 명예장로에 이순복, 장경무, 안수집사에 최화열, 권사에 오인애, 이영숙, 최정래이다.

한편, 건강한교회는 주일예배를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12시 30분에 드리고 있다.

주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127
전화) 714-801-1625

이영인 기자

“Open Your Eyes”

2014년 밀알의 밤 성황리에 열려



2014 밀알의 밤에서 밀알수어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이 “Open Your Eyes”라는 주제 아래 17일 ANC온누리교회, 18일 주님의영광교회, 19일 베델한인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한희준, 영훈을 울리는 작은 천사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초대돼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으며 밀알수어찬양단이 특별 찬양을 해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한희준 씨는 뉴욕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며 느꼈던 바를 간증해 큰 은혜를 주었고 〈그 사랑〉, 〈마음이 상한 자를〉 등의 찬양과 함께 〈지나간다〉 등 인기 대중가요도 열창했다.

더플리 군은 〈Open the Eyes of My Heart〉를 독창, 〈I Can Only Imagine〉을 한희준 씨와 함께 불렀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매년 밀알의

밤 행사를 통해 장학금을 모금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을 돋고 있다. 이 선교단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65만8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집계된다.

첫해 5만4천 달러를 모금해 15명 학생을 도운 아래, 지난해에는 16만 1400달러를 모금해 102명 학생을 돋는 등 밀알의 장학금 규모는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한편, 밀알은 2015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근로복지장학금, 꿈나무장학금 등이 있으며 11월 14일까지 남가주밀알선교단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에 뽑히면 12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다.

문의) 657-400-9570
smilal@milalmission.com

문소현 기자

SRTCS 박사 과정 집중 수업

남부개혁신학대학원 LA 캠퍼스 (SRTCS LA)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0시간에 걸쳐 박사 과정 집중 수업을 한다.

금번 박사 과정에는 기존의 선교학 박사(D. Miss.), 목회학 박사(D. Min.)에 더해 문화교류학 박사(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 Ics.) 과정도 추가됐다. 이는 타문화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인 신학 연구 과정으로 구성된다.

금번에 집중수업에서는 성서 해석과 논문, 사도 영성과 부모 영성 등

두 과목을 여러 교수들이 팀 티칭 형식으로 수업한다. 수업 장소는 2975 Wilshire Blvd. #415 Los Angeles, CA 90010이며 문의는 213-219-0649, bostonch@hotmail.com로 하면 된다.

수업은 2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 3일부터 7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신입, 편입 학이 가능하며 박사 과정의 수업료는 과목당 400달러, 청강은 100달러이다.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W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케다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케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합니다. 커버드 케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미움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 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케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기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213-500-4563
ID:DKHEALTH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베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종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 **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지정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K Health DKHIS.Inc

LIC # :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어몬드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박경호 목사가 취임했다. 취임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얼바인침례교회 박경호 담임목사 취임해

40주년 맞이해 새로운 도약 다짐

얼바인침례교회의 제4대 담임에 박경호 목사가 10월 19일 취임했다. 지난 2013년 10월 20일 한종수 목사가 사임한지 딱 1년 만이다. 박경호 목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이 교회에서 설교해 왔으며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취임예배를 드렸다.

박경호 목사는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로스앤젤스 한인침례교회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다.

이 취임예배에는 이 지역 침례교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박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로스앤젤스교회의 박성근 목사는 17일, 18일 얼바인침례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인도한 후 취임예배에도 참석해 “더 위대한 향해를 위해”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포도원교회 정영민 목사, 씨월드침례교회 이호영 목사, 리버사이드침례교회 남용순 목사, 임마누엘침례교회 한충호 목사, 교단 원로 박정직 목사 등이 참석해 순서를 맡았다. 특별히 한국에서 박경호 목사의 아버지인 박일래 목사가 참석해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 큰 감동을 주었다.

문소현 기자

OC한인교회 이용길 목사 초청 부흥회 “변화된 삶”



부흥회를 인도한 이용길 목사(좌)와 OC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우)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담임목사)가 2014년 주제부흥회를 이용길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다.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목사는 총 5번의 집회에서 “근심하지 않는 삶”, “화목의 삶”, “성화의 삶”, “바른 삶”, “깨달음” 등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용길 목사는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와 이스턴칼리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등을 졸업했다. 1981년 이래 영생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지역 최대의 한인교회로 성장시켰다.

이번 집회에서 이 목사는 시종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결단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이 부흥회를 기점으로 11월 9일 찬양의 축제, 11월 16일 전도 축제 및 간증의 밤, 11월 30일 새가족 환영의 밤 등으로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소현 기자

JAMA 대표에 강순영 목사 취임

“생명 다해 충성할 것” 다짐

김준근 교수에 이어 강순영 목사가 JAMA의 2대 대표로 취임했다. JAMA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임된 강 목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 왔으며 10월 17일 공식 취임했다. 강 목사는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다 1981년 미국 내에 한인대학생선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파송 받으며 미국으로 왔다. 15년간 미주 지역의 대학생선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1993년부터 김준근 교수와 함께 JAMA를 시작해 21년간 총무, 부대표 등으로 섬겨 왔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취임 예배에서 김 교수는 강 목사가 대표로 취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JAMA의 20주년을 맞이하며 김 교수는 대표직을 2세 지도자에게 이임하려 했지만 2세들이 사임을 만류함에 따라 잠시 그 뜻을 보류했다. 그러나 올해 초 김 교수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GLDI를 4년제 대학으로 발전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를 키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또 다시 2세 지도자를 후임으로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왜 네 옆은 보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듣고 강순영 목사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 강 목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사했지만 그 역시 기도 응답을 받고 결국 4년 임기의 대표직을 수락하게 됐다.

김 교수는 “그동안 JAMA가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도움과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JAMA 컨퍼런스, 중보기도 컨퍼런스 등 JAMA의 주요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미국이 회개하고 대각성 해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는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특별히 그는 강순영 목사를 비롯해 JAMA의 스탭들을 치하하고 “최고의 팀”이라고 극찬했다. 김 교수는 JAMA의 대표직을 이임한 후, 이사장 및 설립자가 되어 GLDI 등 차세대 교육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이 부흥을 위해 시작하신 이 운동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 생명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순영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안수기도를 했다. 김준형 기자



이취임예배에서 김준근 장로(좌)와 강순영 목사(우)가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강 목사는 “김 교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계승하고 미국을 위한 전국적 기도 부흥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1.5세, 2세 사역자들이 성공적 목회를 하고 있는 EM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해 차세대 사역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 전했다.

탈북신학교의 벤 신 교수는 “김준근 교수는 모든 면에서 모델(Model)이 될 만한 분”이라 칭하면서 “그는 또한 비전(Vision)의 사람이고 기도(Prayer)의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의 MVP다. 감사하다. 수고하셨다”라고 했다. 이날은 김철민 장로(CMF 대표), 박용덕 목사(OC교협 이사장), 한기홍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민경업 목사(OC교협 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김영찬 목사(OC목사회 회장),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모든 목회자들이 강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안수기도를 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진정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장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n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리한점: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323.737.8888 (한국어카운터 - 서부한인방법)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240g 소비자기격 \$185	3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450
100g 소비자기격 \$90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00	3개 구입시 \$45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페미트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미안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 가능)
- 교수진: 전원 남녀 미국인 교수

New York: Forest Hills
Chicago: Skokie



나성서부교회와 새로남교회가 통합하며 서건오 목사가 담임에 취임했다. 취임예배 후 주요 식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나성서부교회 새로운 도약 향해

교회 통합 후 서건오 목사 담임 취임

나성서부교회와 새로남교회가 서로 통합하며 나성서부교회의 3대 담임목사에 서건오 목사가 취임했다. 19일 오후 4시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통해, 그동안 이정현 담임목사의 사임으로 김승곤 원로목사 체제에 의존해 왔던 나성서부교회는 새로 청빙된 서건오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또 다른 새출발을 맞이하게 됐다. 서 목사는 새로남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고주모 목사(LA서부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위임예배는 기도 정식수 목사, 설교 김남을 목사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서가주노회장), 권면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 축사 임은찬 목사, 축도 이춘준 목사(창대교회 담임) 순으로 진행했다.

김남을 목사는 고후5:8-10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그는 “오늘은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하고도 기쁜 날이다”라고 축하했다.

이운영 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고린

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힐 것을 권면한 것처럼 나성서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마음을 넓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나성서부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통해 아름다운 감동의 소리만이 널리 널리 울려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임은찬 목사는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지역의 모든 불신자들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위임식에서는 노회 위임국장 김남을 목사의 집례로 서 목사가 위임서약을 하고 위임패를 전달받았다. 성도들은 서건오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들이는 교인 서약을 했다.

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린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나성서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힘써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쁨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90019

전화) 323-939-7323

이영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영적각성집회 열려

남가주사랑의교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영적각성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는 토론토 서부장로교회의 박현승 목사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먹일 것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영적 각성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타인을 위한 기도

문소현 기자

○ 교계 단신

나성소망교회 새생명감사축제 “바나바처럼 전도하자”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 목사)는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새생명감사축제를 개최한다. 교회는 이 4주간 동안 한 성도가 한 명을 전도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월 26일에는 새가족 환영회와 기도원 저녁예배가 있고, 11월 2일에는 이경연 전도사의 특강, 11월 9일에는 영적 무장의 시간을 갖게 된다. 11월 16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 효도잔치와 질면조 오찬을 즐긴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이민감사 특별새벽기도회가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23일에 새생명감사축제를 하며 B형 간염 무료 검사와 맛있는 오찬이 준비된다.

나성소망교회는 이번 행사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되자”라는 주제 아래 “바나바처럼 전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준비하고 있다. 나성소망교회는 월서파초등학교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 문의) 213-380-0258

터스틴제일침례교회 응기장이선교단 초청 친양집회

터스틴제일침례교회에서 오는 11월 1일 오후 7시 한국의 응기장이선교단을 초청해 친양집회를 연다. 1987년 시작된 응

기장이선교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친양선교단으로 현재까지 약 20기 멤버를 배출했고 300여 명의 단원들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소) 1618 E. 17th St.

Santa Ana, CA92705

전화) 714-836-5530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진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성막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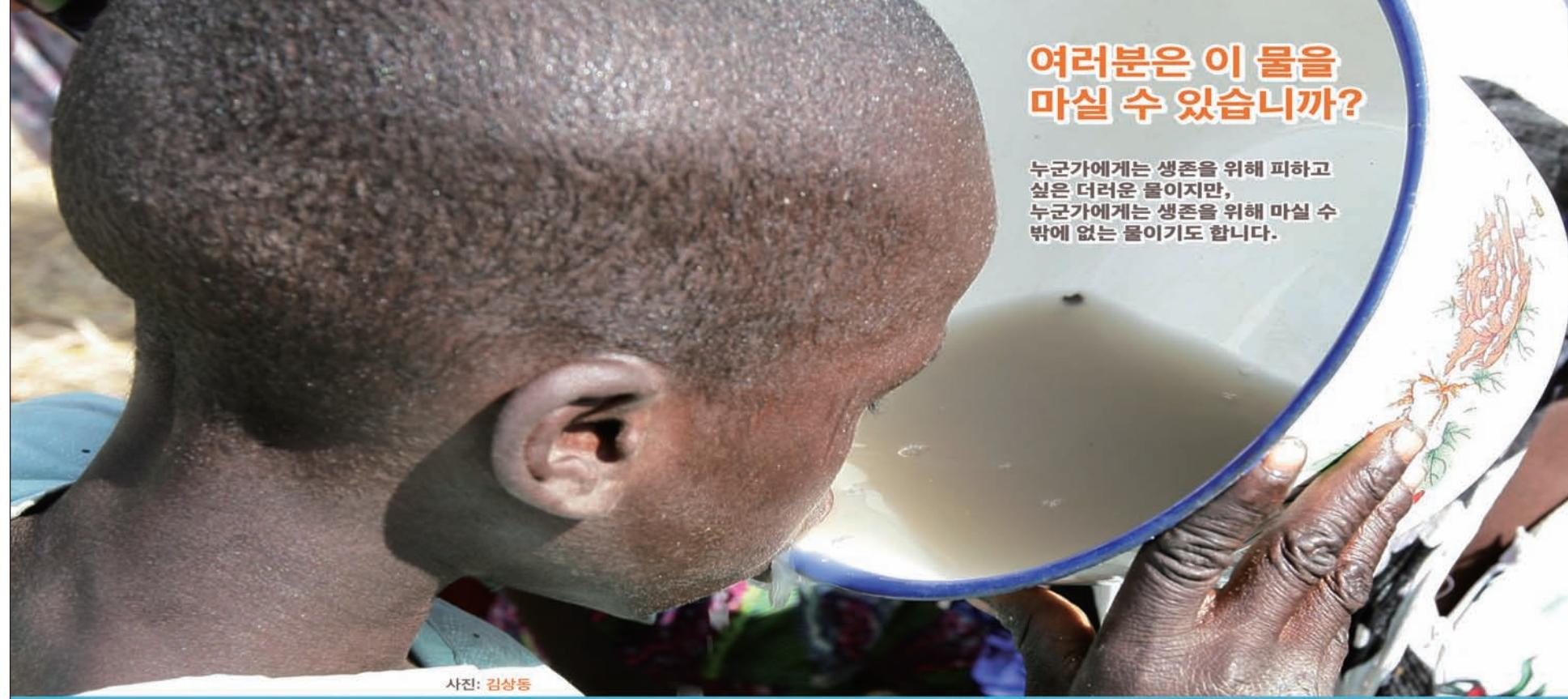
지난 20일 로드랜드대학교에서 열린, 송택규 목사의 신간 출판을 감사하는 예배와 공개 세미나에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세계크리스천영성 대표인 송택규 목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교리인 구원에 관해서 성막을 통해 설명하는 책 “성막영성”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송 목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개념과 단계를 하나하나 펼쳐 내며 이를 영성이라 주제로 도출해 내고 있다.

그는 성막을 회막문, 성막뜰, 번제단, 물두명, 성소와 지성소 등으로 구분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회막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후에는 성막뜰로 제물을 갖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회개와 연결된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다 태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롭다 하는 칭의를 말한다. 물두명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는

김준형 기자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 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Good Neighbors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신앙 및 불신앙의 결과

마태복음 8:23-3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1. 예수님을 몰라보는 제자들의 불안과 절망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시고 견너 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시고 마가복음 4:38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37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가 파선되거나 곧 침몰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제자들은 경험과 기술이며 진액을 다하는 노력으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 쳐 봤으나 자신들의 경험적 기술과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자각의식과 동시에 “이젠 죽는구나!”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혔고 비로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찾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큰 광풍에 배가 파선되거나 침몰할 것 같은 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아온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가히 전문가적인 자부심도 대단했겠지만 그 날은 아무리 노력해 봤으나 자신들의 기능이 전혀 기대걸 것이 없음을 확인하며 죽을까봐 호들갑 떤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후일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1-3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님과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하셨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을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즉 아주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하며 극히 감탄하는 모습에서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근본과 존재와 사명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거센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 때문에 공연히 걱정하며 사력을 다해 헛고생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2. 예수님을 알아보는 신앙

마태복음 8:1-4에는 예수께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마치시고 하산하실 때 밤새도록 길목을 지키며 기도했던 문동병자가 예수님께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신지식(神知識)의 깊이와 예수님의 능력의 가능성 알고 믿는다는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주권적 의지를 절대존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 예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을 드렸기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부패한 몸에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하심으로 문동병을 고침받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5-13에서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간다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을 친구하신 하나님으로 신봉하며 그 말씀의 권능을 절대신뢰하는 신앙심을, 군율의 상명복(上命下服)의 원리를 설명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식과 그 말씀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어 간청하는 백부장의 신앙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 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하셨으나 가버나움의 백부장같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존재와 사명을 확실히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신뢰하면 구원얻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찌니라”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낫는 치유의 성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3. 귀신이 잘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희는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5:4에서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하면서 불안해하고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기록인 누가복음 8:31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0:1-3에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써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과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귀신 떼거리를 몽땅 잡아 결박하고

천년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될 것까지 잘 아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종(信從)하여 멸망을 피하려 하지 않음은 고린도전서 12:3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하셨듯이 사탄에게는 성령님의 계시나 조명, 감동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 음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9-20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줄 알고자 하느냐”하심을 보아서 귀신이 범죄한 후 천국에서 사탄으로 추방되기 전에 수억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수종들며 호위했었기에 옛 상전이셨던 예수님을 잘 알아 볼 수 있었고 이미 신적 작정(神的作定)에 의하여 때가 되면 자기들이 무저갱에 천년간 인봉되었다가 최후 심판 후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임을 푸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척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없다면 귀신의 노리개가 되어 지옥길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 해서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떼거리 귀신들의 간청이 “우리를 죽애 내실진데 저기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고 귀신 떼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며 2,000여 마리가 갑자기 미쳐서 비탈길을 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으나 귀신 때가 나간 두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돼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신명기 14:8

에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 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것이니라”하셨습니다.

이같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신병자로 귀신의 앞잡이가 되었던 두 사람구원받게 된 표적을 통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복음화 되기를 시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령사역은 오늘도 구원얻어 성령받은 성도들에 의해 인류 복음화의 그날을 재촉하신답니다.

호세아 6:3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서 여호와를 알자”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13-14에 성령님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보니 민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로서 천계와 지계와 영계까지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 뜻을 죽여 살다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해도 자신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즉시 믿음의 기도로 문제와 나사이에 예수님을 앞세울 때 즉시 해결과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게 되답니다.

시편 50:15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는 성도라면 자기 인생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것이며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장애물, 광풍노도가 엄습해 온다 해도 당황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예수님께 직고하면 즉시 그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은, 그 길은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이요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난풍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태도가 신지식(神知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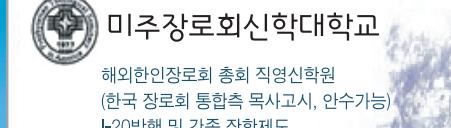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월요일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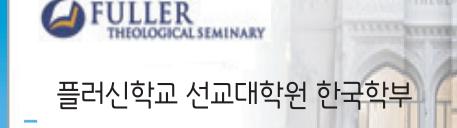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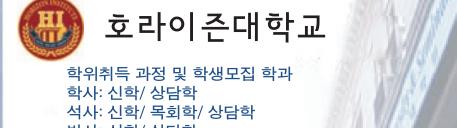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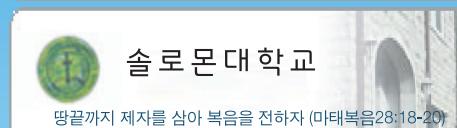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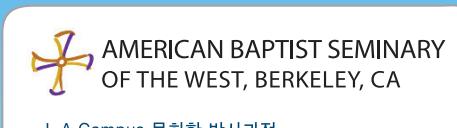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끌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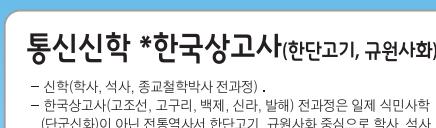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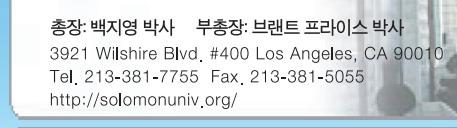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학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 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 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무료 체험(온열 요법)

당뇨 합병증으로 발 이저리고 아프신분

- 발이 차고 시리며 저리신분
- 각종 통증으로 고통이 심하신분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신분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분
-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되시는분

주님이 주신 자연치유 요법으로 편안하게 해 드립니다.

“예약하신분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2836w 8th # 106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1-7273, 213)605-2928

미주 기독교 의료봉사 센터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찬송가는 언제 처음 출판되었을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서적은 물론 성경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공예배나 기타 개인 신앙생활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책이 찬송가이다. 따라서 성경이 출판되고 보급되면서 자연히 찬송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됐다. 이 일에 제일 먼저 착안하고 찬송가를 편찬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 존스(G. H. Jones)와 로드와일러(L. C. Rothweiler)였다. 그들은 1892년에 〈찬미가〉를 편집, 출판하였다. 이것이 한국 찬송가로 첫 출판된 찬송가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널리 쓰여 지지 못했다.

제대로 된 찬송가의 출판 필요성을 느낀 장로교, 감리교 선교회는 두 선교회가 공동으로 쓸 찬송가를 출판하기로 결정한다. 이 일은 감리교의 존스와 장로교 언더우드에게 맡겨 편집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이 일을 착수하기도 전에 존스가 안식년으로 귀국을 했고 언더우드는 이 일을 혼자 맡아 진행했다. 그는 바쁘고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이 일에 전념하여 1893년 〈찬양가〉를 출판하였다. 이 〈찬양가〉의 특색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4성부의 악보를 넣었다는 것이다. 먼저 나온 찬미가는 무곡 찬송가였다. 그러나 당시 곡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내어다 본 언더우드는 소프라노, 앤토, 테너, 베이스 곡을 넣은 4성부 악보를 편집하여 출판했다. 언더우드가 한국교회의 면 미래를 내어다 본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곡이 없는 무곡 찬송가를 부른다고 상상해 보라. 선각자는 현재를 보지 않고 먼 앞을 바라보는 혜안을 지녀야 한다.

언더우드는 이 〈찬양가〉에 우리 교인들이 작사한 찬송 7곡을 넣었다. 그는 서양인들이 작사, 작곡한 것뿐 아니라 비록 소박하지만 한국인 찬송가도 포함시키는 대담성을 보였다. 지은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곡도 있다.

“예수의 놈흔 일름이 내 귀에 드러온 후로 전 죄악을 소멸하니…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여호와와 동락하니 무궁무진 즐겁도다.” 참으로 순수한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부는 〈찬양가〉는 언더우드 혼자 만든 것이므로 공인된 찬송가로 쓸 수 없다고 결의하여 한동안 비공인으로 쓰였다. 1895년에는 장로교 선교사 리(G. Lee)와 기포드(M. H. Gifford) 부인이 편찬한 〈찬성시〉가 출판되었다. 언더우드의 〈찬양가〉는 서울에서, 〈찬성시〉는 평안도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1902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찬성시〉를 장로교회 공인 찬송가로 결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첫 공식 찬송가이다.

감리교회는 1892년에 나온 〈찬미가〉를 1895년에 증보하여 사용하였다. 윤치호(尹致昊)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찬미가〉를 편집하여 출판했다. 그의 〈찬미가〉 속에 그가 작사한 오늘의 애국가 가사가 들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당시 교회의 애국충군(愛國忠君)의 기상을 나타내 보이는 단면이다.

여러 교파가 각각 자기들만 쓰는 찬송가를 통합하여 쓰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 1905년 한국에 나와 선교하던 여러 선교회들이 ‘재한복음주의선교공의회’를 조직했다. 이 공의회는 공용 찬송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추진했다. 1908년에 이르러 장·감·연합하여 〈찬송가〉를 발행했다. 1924년 장·감·양 교회가 찬송가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28년 〈신정찬송가〉(新訂讚頌歌)를 다시 출판했다. 그러나 이 찬송가

에 불신자인 이광수, 이은상 등이 작사한 찬송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장로교에서는 이를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장로교에서는 1934년 〈신편(新編)찬송가〉를 따로 출판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감리교회는 〈신정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여 찬송가 활동 사용은 끝나게 되었다. 한국교회가 다시 초교파적으로 찬송가를 공히 사용하기까지는 1983년 〈통일찬송가〉가 나오기까지 약 50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군소 교파들은 각기 자기들 교파에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영국 성공회는 1903년에 〈성회송가〉를, 그리고 1904년에 〈천도찬사〉를 편찬해 사용했다. 구세군은 1908년에 〈구세군가〉를, 그리고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전도회는 1911년에 〈복음가〉를 편집 출판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1913년에 〈부흥송가〉를 편찬하여 사용하다 1930년 〈신정복음가〉를 증보, 개편하여 사용했다.

찬송가 사용에 대해 게일(J. S. Gale)은 “우리(서양식) 음악은 한국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음악의] 가락이나 표현만으로 본다면 ‘만세반석’의 [엄숙한] 표현보다 경쾌한 곡조가 더 좋다”고 언급했다. 구미인의 찬송은 한국인에게는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서양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번역하며 한국교인들이 부르는 것보다는 한국인들 정서에 맞는 한국인 자신의 찬송가를 불러야 마땅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국인들에 의한 한국인 자사, 작곡 찬송가 출현은 시기상조였다. 문제는 그때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대부분이 서양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 준 찬송가를 부르던 시대를 지나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여 부를 때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보입니다



김 지 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동이나 태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한글 개정개역 성경에서 ‘마음’을 검색해 보니 구약에서 819회, 신약에서 239회, 총 105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성경이 마음에 관하여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마음을 가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삶이 거칠어집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뜻은 단순히 외모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훌륭한 사람을 뜻합니다. 역으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도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마음이 나쁘거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로마서 8:27).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것은 예식적인 문제입니다. 인간관계도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인간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는 이미 그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 믿고 계시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까지 10억명에게 복음 전할 것”

국제CCC 더글라스 총재 특별 기자간담회



더글라스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CCC) 2014 동아시아 간사수련회(EAO All Staff Conference)가 진행 중인 강원도 흥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둘째 날인 20일 오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제CCC 총재 스티브 더글라스 박사와 동아시아 지역 대표 윤승록 목사,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 등이 참석해, 국제CCC와 동아시아 사역, 향후 사역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윤승록 목사는 간담회에 앞서 “최근 20주년, 40주년, 50주년을 각각 맞이한 동아시아 사역 국가들을 돌아보면서, 그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수고한 동역자들을 격려했다”며 “2020년까지 1천만 명의 제자 양육이라는 비전을 놓고, 변화될 CCC 사역에 있어 동아시아 지역 전임간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는 국제CCC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CCC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승변법식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화시켜, 그들이 또다시 제자를 세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일이 간사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도록 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글라스 총재는 오는 2020년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 2020’을 이루기 위해 대학생 사역, 커뮤니티 리더 훈련, 디지털 사역, 교회개척 사역 등 4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역을 다른 선교단체 혹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승록 목사는 “7개 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에는 4억 3천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며 “총 1,700

여 명의 전임간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이 중 450-500명이 세계 43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라고 밝혔다.

윤 목사는 “3,400여개 대학 중 400여곳에서 간사들이 사역 중”이라며 “특히 한국과 싱가포르, 대만에서는 성숙한 캠퍼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사역단계인 ‘Stage 3’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동아시아 지역 사역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선교에 기여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적인 지원과 인프리를 제공하는 기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는 기대도 전했다.

내년 1월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는 박성민 목사는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서 “한국CCC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며 “국내 그리스도인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지만, 오히려 정예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늘고 있어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는 한국CCC의 간사 지원자 수나 여름수련회 참석 학생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오는 2016년부터는 매년 100명 이상이 간사로 지원하면, 그 중 절반 정도는 선교 사역의 일꾼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IT 인프라를 활용한 미디어 전도 전략에 대해 “한국을 넘어 미디어 세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지난 2003년 이후 11년만에 개최된 CCC 동아시아 간사수련회는 19일 개막해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한국·대만·싱가포르·일본·몽골 등 7개국 전임 사역자 984명이 참석했다.

이대웅 기자

“무너진 공립 교육 향한 주님의 마음 깨달아”

사이프레스 교육구 교육위원에 출마한 샌드라 이 후보

사이프레스 교육구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샌드라 이(Sandra Lee) 씨가 출마해 11월 4일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3명을 뽑는 선거에 밸레리 피터스 와그너(Valerie Peters Wagner) 위원장, 스티브 블론트(Steve Blount) 교육위원 등 2명의 현직 위원들과 CSU 롱비치 캠퍼스의 리디아 손디(Lydia Sondhi) 교수, 샌드라 이 씨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다.

이 후보는 UC 얼바인을 졸업하고 UCLA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후, 실제 공립학교 교사로 수년간 가르치며 실무를 익혔다. 매그놀리아 교육구에서 교사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지도교사로 일한 경험을 통해 동료 교사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밝다. 현장과 실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인 데다 본인도 학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후보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저 우리 지역사회의 학생과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시민이요, 어머니이며, 교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공약도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먼저 교육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자산을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교육 직원과 교사, 학생과 부모, 지역사회가 내일을 꿈꾸며 소통하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무엇보다 그가 이번 출마를 결심

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한 소명의식 때문이다.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멀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무너져버린 교육 현장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 틈새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2003년 이래로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 공립학교 교사로 헌신해 왔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교육구에서 교육감을 도와 교사들을 훈련시키며, 학교 행정과 커리큘럼 문제를 고민해 왔다”면서 “이런 고민과 기도 속에서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자녀들을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생들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립 교육의 가장 큰 중심축은 각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이며 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인 부모들과 교회에도 감사 to 전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이프레스 교육위원 샌드라 이 후보

말한 후 “저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 준 한인 이민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었기에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인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매우 직접적인 정책들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투표로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 이 후보는 LA사랑의교회 집사이며 그의 남편 이재영 집사는 LA사랑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 등학교의 행정 디렉터다. 또 이 후보는 라팔마 시 부시장인 피터 김씨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김준형 기자

글로컬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열린다

“많은 한인교회가 이슬람권인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 투자했고 실질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주에 아프간 현지 사역자가 개척한 아프간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북미주개혁교회(CRC)에서 한인 코디네이터로 사역 중인 찰스 김 목사는 이번 글로컬 교회 컨퍼런스를 이렇게 소개했다. 글로컬은 영어 Global과 Local의 합성어로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특색에 맞추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를 교회의 복음전파나 선교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가리키게 된다. 이는 요즘 선교학계에서 대두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개념과

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타문화권은 물론이고 자문화권 내에서도 끊임없이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컬 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두 가지 개념에 입각해 교회의 사역과 미래를 토론하는 시간이다. CRC 교단이 주도하는 행사이지만 칼빈신학교, 풀러신학교, 크리스천리폼드홀미션, 크리스천리폼드월드미션 등의 단체가 협력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신학자 이자 선교적 교회 운동가인 앤런 록스버그를 비롯해 뉴송교회의 데이비 기븐스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한인 중에도 크리스천리폼드홀미션의 디렉터 정도세 박사, ITS의 총장 제임스 리 박사 등이 강연을 맡는다. 이 외에도 팀 소련스, 스

티브 팀마리스 등 선교적 교회 운동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컨퍼런스에는 특별히 한인 트랙이 별도로 개설됐다.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LA생명찬교회 김동일 목사 등이 한인 트랙에서 강의 한다. 아름다운교회는 화교, 일본인들이 교회당을 빌려 사용하며 공존하는 선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LA생명찬교회는 카페와 저가 식당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장애우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강사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현실적 목회 감각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 컨퍼런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또감사교회(최경숙 담임목사,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90012)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www.glocalchurch.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엘란트라, 소나타

구입서류: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 연락처: 213-276-8959 (찰리 정 매니저)
▷ 주소: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SUPER STORE



찰리 정

영 성공회 대주교 “무력 사용해서라도 IS 막아야”

더 위대하고 이타적인 맥락 안에서 수행할 것 강조

영국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는 17일(이하 현지시각)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해 언급하며 “공격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해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스틴 웰비 대주교

웰비 대주교는 현지 월간지인 프로스펙트 11월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절대적 평화주의’(absolute pacifism)라는 강력하고 담대한 전통이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현재 ‘중동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곳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무력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무력 사용은 1914년부터 시작되어 온 오랜 전쟁 이후, 우리의 대륙을 재건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더 위대하고 이타적인 맥락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비 대주교는 또한 “이 분쟁은 우리의 안위와 재산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재건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쟁을 야기하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종교적·철학적·윤리적 영역에서 성전주의자(자하디스트)들을 몰아내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웰비 대주교는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에 걸쳐, 종교적·인종적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S 외에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과 같은 폭력단체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중앙아

프리카공화국은 종교적 위기와 더불어 완전한 야만주의로 빠져들고 있다. 소말리아는 혼돈 가운데, 리비아는 붕괴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싸움은 단순히 종교적인 분쟁이 아닌 윤리적·경제적·사회적 불안, 빈부 간 불평등, 자원에 대한 제한적 접근, 역사적인 증오, 독립전쟁 이후의 발생한 많은 분쟁들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단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복잡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혼돈을 모두 종교적인 분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분쟁이 매우 복잡하게 얹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라크·시리아 등 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지역(수단, 나이지리아, 최근까지 대부분의 관심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은 잊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웰비 대주교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역시 IS를 면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은 절대 전 세계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IS를 상대로 한 미국 주도의 연합 공격이 ‘내재된 결의 작전’(Operation Inherent Resolve)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지상군 투입을 명령했다. 동맹군들은 IS에 대한 공습과 더불어 이라크와 쿠르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종교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박해 큰 문제”

막수드 카밀 박사, 파키스탄 선교 현황 전해

교회에서 일어난 자살폭탄테러, 엄격한 신성모독법, 기독교인에 대한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 생활터전 파괴, 기독교인 여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포함한 상습적 폭행 등… 무슬림이 96~97%에 이르는 파키스탄에서 이 같은 종교 폭력과 박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현지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의 국제모임인 인페미트(International Fellowship for Missions as Transformation·INFEMIT)가 15~17일 서울 헬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2014 스토프트-베디아코(Stott-Bediako) 포럼의 논찬자로 참석한 옥스퍼드선교대학원(OCMS) 박사 과정의 막수드 카밀(Maqsood Kamil)은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학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응전할지를 논의하고 싶었다”며 “이는 서구 선교사 중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며,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둘”이라고 강조했다.

카밀 박사는 또 “파키스탄 역시 서구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였다”며 “서구 상황과 파키스탄 상황에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 상황에서 토착민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밀 박사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생생한 박해현장으로 작년 9월 폐사와르의 올세인트교회(All Saints Church)에서 일어난 자살폭탄테러를 들었다. 그는 “당시 두 명의 이슬람 자살특공대 때문에 130여 명 가까이 사망하고, 160여 명이 부상당했다”며 “지금까지도 대다수 피해자가 전혀 치유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개인에 대한 박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을 추방하고,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말 가혹한 박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의 상황화 선교 방안으로 카밀 박사는 “예수를 닮아 사는 것이 박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화라고 믿는다”며 “무슬림은 우리를 증오하고 때리고 살해하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화 선교의 예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한 병원을 열고 지원 물자를 보낸 것을 꼽았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중 그리스도인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증오하고 죽여야 한 무슬림을 위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도왔다”며 “이것이 파키스탄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상황화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인의 이 같은 나눔과 섬김, 혼신에 당시 무슬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카밀 박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빨리 열린다”며 “지진, 홍수 등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도움을 주자 많은 무슬림이 기뻐하고 마음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문제는 위급한 시기인 지나고 나서, 간이보건소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우려 할 때마다 군사정부가 군대를 보내 이를 막고, 기자재를 빼앗으며 전도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밀 박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지 신학교 부학장을 맡고 있는 그는 “파키스탄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신학교를 통해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라며 “신학교를 세울 때마다 학교 건물과 자재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교수도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 내 더 많은 기독교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교회 밀션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부예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창강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회-토 오전 6:3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urhrc.com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저녁 8: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323) 272-6031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김광삼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오전 10:30(수)

나눔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심지어의 능력을 증가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눔순복음교회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남가주광염교회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5 S. Hobart Blvd., LA, CA 90004
T. (323) 388-7101

나성제일교회

주일 오후 4시

새벽 예배 주일 오후 7:30
성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밀숨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온애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나성동산교회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한기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새벽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현 담임목사

주일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9:00
새벽예배 주일 오후 11:00
정경우 담임목사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교회 및 선교소

LA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말) 오전 11:30 토요도입(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말) 오후 01:30 성경연구회(주) 오후 07:30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비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9: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후 11:45 오전 6:00(토)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기도회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1:45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립나눔터(매주토) 오전 10:00-11:0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기도회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1:45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주)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기도회(주) 오후 8:00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예배 오후 7:30pm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ee.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주)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중, 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대연습 모교 10:20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주)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중, 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대연습 모교 10:20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동부(주)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중, 고등부)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대연습 모교 10:20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 고등부예배(주)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 유아동부예배(주)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주) 오후 7:2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주)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8: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주)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부) 새벽예배(주) 오후 7:00(토)
오후 1:00

1부예배 오전 8:00 EM 예배 오전 9:30/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2: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하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주) 오후 9:30/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주) 오후 9:30/11:0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주)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2:00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스토리예배 오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 금요찬양예배(주) 오후 8:00
오후 12:00(본분)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후 10:00 새벽기도회(주) 오후 6:30(토)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2: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성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후 10:00 새벽기도회(주) 오후 6:00(토)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주)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2:00

온예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예배 오전 11:20 새벽기도회(주) 오전 9:00
금요예배(주) 오후 8:00 새벽기도회(주) 오전 5:30(화~금)
6:00(토)

최혁 담임목사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 Rinaldi St., Norridge, CA 91326

비전체플 Vision Chapel 주일예배 월~금 오전 9:30 / 11:30
2부예배 월~금 오전 10:00
12631 E.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월~금 오전 9:30 / 11:3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이병준 목사 선출

교단 총무 모임, EM 영성수련회, 세월호 기도회 등 사업



뉴저지교협 정기총회가 13일 뉴저지행복한교회에서 개최됐다.

뉴저지교협 제28회 정기총회가 13일 오후 6시 뉴저지행복한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원선거 결과 신임회장에는 직전부회장이었던 이병준 목사가 선출됐으며 목사부회장에는 이희철 목사(뉴저지은혜성결교회), 장로부회장에는 김진수 장로(세빛교회)가 선출됐다.

이병준 목사는 올해 5월까지 뉴저지목사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계 주요 단체를 이끌어 온 경험과 역량으로 교협을 섬기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회계보고에 의하면 뉴저지교협의 전회기 총 수입은 70,777불이며 지출

은 68,794불로 잔액은 1,982불이다.

뉴저지교협은 지난 27회기 동안 각교단 총무 초청 모임을 시작으로 EM 사역자 영성 수련회, 세월호 참사 회복기 도회, 호산나전도대회, 북미원주민선교 대회 등 총 19차례의 주요행사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이병준 목사의 사회로 장동신 목사 대표기도, 이동구 장로 성경봉독, 뉴저지장로성 가단 특송, 이우용 목사 설교, 뉴저지남성목사협창단 헌금송, 박영주 목사 헌금기도, 박근재 목사 광고, 유재도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베이사이드 시대 여는 뉴욕초대교회, 새 성전 입당

“교육과 지역사회 섬김에 주력하겠다”



뉴욕초대교회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

뉴욕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지였던 우드사이드에서 교회를 개척, 그동안 이민 교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던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베이사이드 시대를 활짝 열었다.

뉴욕초대교회는 19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 새 성전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뉴욕교계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입당감사예배 드리고 베이사이드 지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담임 김

4/14 원도우 뉴욕컨퍼런스 폐막

91개국 1200명 사역자 6박7일 동안 어린이 사역 논의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뉴욕프라미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이 윤사로서 윤리느

스교회(남임 김남주 목사)에서 진행된 '4/14 윈도우 뉴욕컨퍼런스'가 폐막되면서 차세대 향한 이정표가 새롭게 세워졌음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5년 동안, 중남미를 비롯,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의 45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임을 확인했다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사역지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이번에 함께 나눈 'How'를 가지고 빛

개국 지역 대회와 뉴욕(2009, 2010), 싱가폴(2011), 방콕(2013)에서 열린 4번의 국제 대회에서 어린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과 사역을 헌신한 사역자 22만 명, 즉 특별히 1200여 명의 참가자가 은 바 사명을 향하여 내려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인 김남구 목사, 누이즈 무지 박사 를 비롯하여 세계 최대의 어린이 구호 기관인 국제 컴패션의 대표를 역임한 후 현재 4/14 윈도우의 앱베서더로 섭기고 있는 웨스 스텝포드 박사, 또한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기관인 'One Hope'의 대표 밥 호스킨스 목사가 리더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몇몇 강사만 강의를 주도하지 않고 모든 사역자들이 각자의 사역을 보고하고 간증할 수 있게 준

더었다.

참석자들은 리더들의 격려와 열정 어린 말에 눈물을 함께 흘리며 곳곳에서 흐느꼈다. 이어 호스킨스 목사는 기도로 축복하며 필요한 힘과 지혜를 구했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4/14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 구했다.

수치상으로 이번 대회기간 중에는 마 끼 1300명분의 식사가 총 19번 제공됐다. 주일침교에는 2500명분이 제공됐으

비한 점이다. 이로 인해 총 51명의 사역 보고가 있었다. 또한 다 하지 못한 수백 여 내용들이 서면으로 제출돼 4/14 윈도우 공식사이트(www.promiseny.com, 4to14window.com)에 업데이트 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어린이 사역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라미스교회에

며 선발대의 일정까지 포함해 이번 대회기간에 식사는 모두 27,700끼가 제공됐다. 식사는 모두 프라미스교회 식당의 요리팀과 배식팀이 혼신적으로 담당했다.

또 1천여 명의 해외참가자들을 위한 일주일간의 숙소가 교회인근 7개 호텔에 분산되어 제공됐으며, 참가들의 교통

서는 5번의 ‘히즈라이프’ 공연과 ‘파워하우스’ 참관수업, 그리고 ‘Best Practice in Concert’를 준비하고 소개했다. 편을 위하여 대형버스 12대, 중형버스 14대가 셔틀로 운행됐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프라미스교회는 400개의 통역기를 준비, 스페니쉬, 영어, 한국어, 불어 등을 동시통역하여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온

준비해, 각각 대륙별로 참가하여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또 새벽예배에는 전 참가자가 모여 그동안 프라미스교회가 어떻게 이 대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왔는지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식에서 김남수 목사는 ‘존귀한 자들’(시 16:1-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린 모든 참가자들이 언어에 전혀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항공편에 지장이 없는 약 600여명의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프라미스교회에서 마련한 관광프로그램을 통해 맨하탄 및 근교관광에도 참여했다.

프라미스교회는 이번 대회를 결정한 이후 참가자 한 사람을 한 성도가 담당하는 캠페인을 진행, 약 450불의 비용을 매달 50불씩 9개월 동안 헌금했다. 이에

이들을 위하여 이제 각 나라와 사역으로 돌아가는 존귀한 자”라면서 “어린이 사역은 외롭고 힘들며 시간과 물질을 요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생명도 내 놓아야 한다. 결코 어린이를 소외하지 말고 감당하며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어린이들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설교에 이어 파송의 시간에 강단에 올라온 부시 박사는 “우리는 이번에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대가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섬김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해외 사역자들을 만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힘이 되어 이제 더 분명하게 세계선교와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비정규회, 미안, 복지회, 미안, 의회, 씨드미니, 절다

미신교회, 빌빌 폭시옴 마난 귀한 씨드머니 신필

비전교회(담임 정경성 목사)에서 애 참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표현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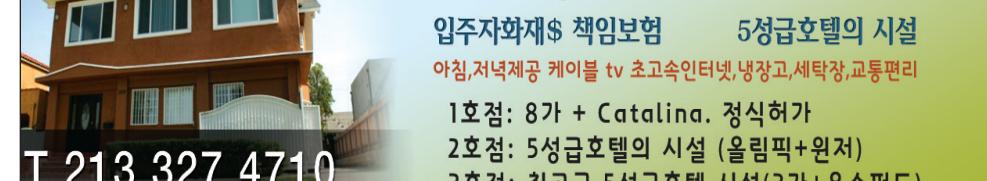
四百一

복지홈 씨드먼니 마련을 위한 친선골프 대회를 개최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골프 대회에는 이희양 밀알 이사장과 천경태 이사도 함께 했다.
18일(토) 오후 7시, 밀알선교센터를

밀알 복지홈은 성인이 되어 정부 혜택
혜택을 아버지들의 공동으로 준비해
녀 식사를 나눴다.

을 받기 힘들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
동체로 자라나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하
몇 년 전부터 기획되어 씨드머니를 모
련 중에 있다. 박현희 기자

O.C./얼바인 지역



1,210,627,111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질환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 공법으로 특수 기공한 차세대 신약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거나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면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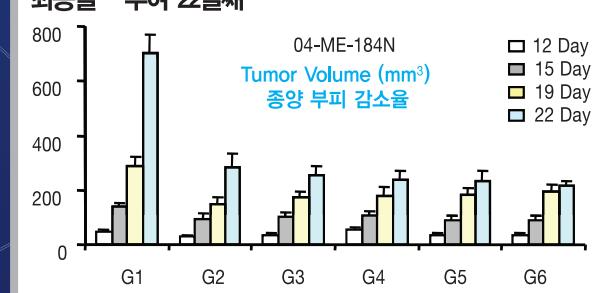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99일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c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치료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몰내)

“이중직 목회자, 눈치 보며 일하다 건강·가정까지 무너져”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장, 각 교단에 ‘겸직 금지’ 해지 요청

‘목회자의 이중직: 불법에서 활성화까지’ 세미나가 17일 오후 서울 나루터로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개최됐다.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조성돈 교수(실천신대)가 ‘목회자의 이중직, 그 상황과 이해: 목회자의 겸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영 교수(실천신대)가 ‘이중직의 가능성, 동네에서 찾다: 목회자 겸직으로서 지역공동체 운동’, 장진원 목사(좋은이웃교회)가 ‘목회자 이중직 실태와 실제적 고찰: 목회자 이중직 그 이후?’를 각각 발표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여론은?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최근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4%(474명)가 ‘찬성한다’고 응답, ‘반대한다’는 22.9%(207명)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개척 시 자립할 때까지 목사가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해선 63.1%(570명)가 ‘무방하다’, 22.4%(203명)가 ‘조건부 가능하다’, 14.5%(131명)가 ‘안 된다’고 응답, 85%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 중 37.9%(343명)가 ‘교회 사역 외의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파트타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는 91.4%(826명), 사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88.8%(803명)가 각각 ‘무방하다’고 응답했다. 전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도 53.4%(483명)가 ‘무방하다’고 봤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66.7%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기준 163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받고, 담임목사나 전임사역자 등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는 목회자의 이중직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대부분 교단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세미나는 설문 결과와 함께, 대리운전 등 이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현실이 반영됐다.

조성돈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실천신학은 현실에서 이론을, 성경과 전통을 묻는 것이고, 목회사회학은 특히 현실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학문”이라며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

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의식은 어떤해야 할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활동이 가능성일 수도 있다”며 “작은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앓기도 하는데, 경제활동을 통해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목회를 한다면 이것이 요즘 말하는 ‘미셔널 처치’ 아닐까”라고 했다.

부정적 시각 버리고 해법 제시해야



조성돈 교수

첫 발표에 나선 조성돈 교수는 “목회자들은 생계가 어려워지면 보통 사모부터 일을 시키다가 아내의 건강이 나빠지면 결

국 직업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한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택배 물류센터, 과외교사, 한약관리, NGO 사무, 문화센터, 공공근로, 전기기사, 학원 운영, 퀵 서비스, 우유 및 녹즙 배달 등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종교와 노회, 교인들의 눈에 띠지 않으려 밤새 일하거나 새벽 일을 하다 보니 체력에 한계를 느끼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고 했다.

조 교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회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찾아 다니며 후원 요청을 하는 길이 대부분인데, 자립보다 의존에 물드는 일이 많은 점에서 차라리 겸직을 허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도 했다.

조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은 목회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금지 조항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현



목회자가 목회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는 현상에 관한 세미나가 목회사회학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실적으로 목회자들이 교회 사례만으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만큼, 각 교단이 유지하고 있는 겸직 금지 조항을 해지해 더 이상 목회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기보다 뜻뜻하게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목회자들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의 교양강사로 나서거나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 등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사회 복지활동도 좋은 예”라며 “전업일 경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트 사역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면서도 목회가 큰 부담이 없는 일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단들을 향해서는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교수는 “교단들이 교세를 늘리려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개척을 장려하지만, 정작 그들의 생존에는 무관심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교단이 그들을 목회자로서 공동체에 편입했다면 삶도 책임져 줌으로써, 목회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교단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생계비 외에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노후대책”이라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목회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 나아가 사회에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한국교회는 이들의 남은 삶을 진지하게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성돈 교수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점”이라며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소명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 수 있을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겸직이 오히려 목회를 유지하는 길이 되고 있는 사례가 느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한국교회가 진지하고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본질 지키며 시대적 요구 충족해야



정재영 교수

정재영 교수는 ‘지역공동체 운동’과 ‘비즈니스 선교(BaM)’ 차원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협동조합, 카페, 지역 특산물 등을 통한 목회자들의 여러 활동 사례들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교회는 변해가는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독교의 전통을 사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야기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된다”며 “다양한 대안경제 운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참여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화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목회의 지평도 더욱 의미있게 넓혀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장진원 목사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시도했다.

장 목사는 “목사직이 구별된 제사장적 성직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개념이라면, 전문직으로서 목사는 이미 그 안에 직업적 차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중직 개념에는 성직적 차원에서 성속을 구별하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단과 한 국교회 현실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중직 논란은 감정적 싸움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장 목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사역”으로 목회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한국교회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발견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논란을 넘어 △예언자적 소명의 회복 △판단 기준이 아니라 회복의 중심으로 △창조적 실험과 대안 개발 △새로운 네트워크와 실천운동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에는 정용훈 목사와 이재학 목사(하늘땅교회)가 사례발표를 진행했고, 질의응답과 그룹토론,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대웅 기자

CD, DVD 가을 할인행사 10월 31일 까지

믿음의 기업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미디어사역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자 가을의 문턱에서 할인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 전도용 설교시디 프린팅 \$ 0.25



■ 강해설교, 시리즈 설교 및 신학교 세미나용 오디오북 제작



■ 찬양시디 앨범 (개인음반, 성가대, 찬양팀) 1set \$1.25



■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교회홍보 시디 및 DVD제작

■ 음악회 패키지 !!!
(모든 것을 한곳에서 해결하세요.)
(초청장, 티켓, 팜플렛, 포스터, 배너, 플라이어, 시디앨범)

■ 카세트, 비디오 테입을
CD, DVD로 변환해 드립니다.

Blank CD \$ 0.14
Blank DVD \$ 0.17

★ 배너 및 각종 사인, 인쇄 등 교회 미디어 사역 전반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 한국 8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족,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키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
효능이란?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시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맡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빼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 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
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자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얼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쟁여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과 공공성 변증] 86세로 별세한, 현대신학의 거장에 대한 추념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가 현대신학에 남긴 공헌 (4)

- I. 희망의 신학자라기보다는
보편성 내지 공공성의 신학자
II. 보편사를 신학의 지평으로 제시
III. 역사적 예수에서 출발하는 기독론
IV. 보편학문으로서의 신학 정립 시도
V. 미래 우위의 사상가: 종말론적 존재론
VI. 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증언
VII. 신학과 자연과학과의 대화
VIII. 하나님 통치 윤리 제시

판넨베르그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 통치의 윤리(Ethik der Gottesherrschaft)를 제시한다. 하나님 통치의 윤리는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특징으로 한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평화는 정의와 함께 세상 나라들의 지배형식을 대체하는, 희망된 하나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을 형성한다.” 인류사가 보여주듯이, 부분 자유만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신다(Horst Georg Pöhlmann, Gottesdenker, Hamburg: Rowolt, 1984, 159-160). 그는 ‘세계평화질서(Weltfriedenordnung)’를 요구한다. 그는 세계평화질서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 하나님의 평화왕국을 가져올 수는 없으나,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현(先顯)이라고 본다. 강대국을 포함하여 세상국가들을 평화로 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고의 세계정부의 지위를 지닌 국제기구가 있다면 전쟁의 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정부는 원자핵 시대의 난관에서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를 위하여 강대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실현될 수 없다. 판넨베르그는 이러한 ‘국제적 중앙권력(Internationale Zentralgewalt)’이 힘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유엔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유엔이나 WCC 등 인간이 만든 세계평화기구가 세계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기구는 ‘덜한 악(das kleinere Übel)’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구의 주요 과제란 군축(Rüstungsbeschränkung)이다. 그는 중부 유럽에서 핵을 폐기한 ‘원자무기 없는 지대(atomwaffenfreie Zone)’를 요구했다. 전쟁이란 도발하지 아니한 적의 공격에 대한 불가피적인 방어라는 일정한 상황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나, 그는 관례적인 전쟁이나 핵전

쟁을 반대한다. 판넨베르그는 전통 신학이 찬성한 ‘정당한 전쟁’에 대하여 반대한다. 개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당한 전쟁이란 없으며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전쟁이란 한 계상황 속에서는 불가피하나, 항상 상대자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이다. “적대자의 제거가 전쟁의 내적 법칙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동기에서…… 싸우는 자들조차도 이 내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은 정당하지 못하다.”(Pannenberg, Ethik und Ekklesiologie, Göttingen, 1974).

하나님 통치의 윤리란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덜한 악인 인간적인 기구를 통하여 상대적인 평화와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IX. 보편사적 이성의 신학자

역사적 예수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 판넨베르그와 루터교 보수신학자 알트하우스는 서로 일치하지만,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fides quaerens intellectum)인 판넨베르그의 입장은 신앙을 추구하는 지식(intellectus quaerens fidem)인 알트하우스와 다르다. 판넨베르그는 예수 역사의 계시 성격은 예수의 출현과 숙명의 그 당시 일어난 역사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알트하우스는 “신앙이 전제하는 일어난 역사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계시의 지식은 “신앙 자체와 함께 실현된다.”(P. Althaus, “Offenbarung als Geschichte und Glaube, Bemerkungen zu Wolfahrt Pannenbergs Begriff der Offenbarung”, ThLZ, 87, 1962, 321ff., 325).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신학에 있어서 계시사와 세속사는 분리되지 않고 혼동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예수의 부활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크나큰 공헌이기는 하지마는, 몰트만이 주장하는 바 같이 예수 부활은 역사적 지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종말론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조자연적 계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판넨베르그의 보편사 사유는 한편으로는 예수 부활 사건이 역사적 지성으로는 천착할 수 없다는 것을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인정하면서도 다른 편으로 여전히 역사적 겹증이라는 지식 우위 통찰의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 보편사와 계시사를 동일시하고, 계시를 역사종말에 대한 선취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사고는 예수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가 신의 아들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계시보다는 역사적 지성을 우위에 두려는 그의 이성우위 사고의 한계가 있다.

역사 이성을 강조하는 판넨베르그의 신학은, 성경을 신학의 전제보다는 종교적 전통의 원천으로 본다. 그는 역사비평학이 도입한 성경의 원문 비평 때문에 영감론이 파괴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바르트까지 옹호한 성경의 영감론을 비판한 그의 입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성적 통찰을 중요시하는 그의 보편사신학의 사색은 믿음의 과정에 성령의 조명의 역할, 즉 영감된 말씀이 부가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판넨베르그는 계시의 인식을 위하여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가 사건 설명에 부가되어야 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의미는 영감이 아닌 사실 자체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2003, 396-401). 그러나 후반의 『조직신학』 3권에 있어서 계시에 대한 역사적 지식의 균열을 언급함으로써, 계시 인식의 과정에서 이성의 통찰을 넘어서는 신비적 측면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이성적 신학을 전개하는 그의 신학의 의도는 시종일관 기독교 진리의 합리성이 입증될 수 없다면 신앙의 접근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의 기독교 진리의 공공성 신념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 사적 세계로 축소시키려는 개인적 경건주의를 극복하고 전제로서의 세계에 대한 신앙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X. 전통적 교리와 교회 예전 중요시

현대신학자로서 판넨베르그는 기독교 진리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변호함에 있어서 전통과 교회의 예전을 중요시하였다. 그는 비판자들과는 달리 그 자신의 지성적 회심의 체험이 있으며, 전통적 교리과 규범을 중요시했으며,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악인의 심판을 인정함으로써 보편구원론의 견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1) 지성적 회심의 경험: 빛의 체험

판넨베르그가 16살 되던 해 어느 겨울 해질 무렵,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가 경험한 한 줄기 빛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회자(瞻炙)된다. 당시 그는 멀리서 비치는 한 빛에 이끌리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삶을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다. 강렬한 종교적인 경험을 나중에 ‘빛의 경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자와 종교 사상가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16세 때 도서관에서 니체의 책과 만나면서,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세계가 비참해졌다고 확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고백 교회 신자였던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 판넨베르그에게 기독교에 대해 연구하라고 권했다. 무신론자니 체와는 다른 기독교를 발견하면서 신학을 공부, 기독교가 최고의 철학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지적 회심’을 하게 된 판넨베르그는 기독교가 현재 최선의 종교적인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칼 바르트의 저작을 통해 영향을 받은 그는 1950년부터 바젤에서 바르트에게서 직접 수학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는 바르트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이 세계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의 완성이란 사실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세속적 경험 안에서도 신앙적 암시를 주는 것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서 교회는 언제나 사회가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그의 조직신학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전통교회의 규범과 예전의 강조

판넨베르그는 몰트만처럼 직접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한 경험은 없으나, 그의 신학 사상은 보수적이며 교회의 전통과 예전적 삶에 근본적으로 정위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영국의 존 로빈슨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의 의미성을 평가절하하고, 미국의 폴 틸리히가 교회가 말하는 경건과는 다른 세속적인 범종교적 경건성을 말하고, 미국의 조셉 플레처가 전통적 교회의 규범윤리와는 다른 상황윤리를 말하는 것과는 달리, 판넨베르그는 루터교적 정통주의의 교리와 예전을 근본에 있어서 수용하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판넨베르그는 그만큼 교회의 예전적 삶을 중요시한다. 교회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증언하는 지상의 임시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경건과 생활양식을 동반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그는 종말론적 윤리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부정하고 현실에 주어진 체제를 전적으로 뒤엎고자 한 해방신학에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는 보수주의자였다.

3)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 통치 실현

판넨베르그는 세계의 평화란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다. 유엔이나 WCC 같은 기구는 이러한 세계 평화를 실현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지상의 교회는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증거하는 데서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면서, 세계교회의 기구적 일치를 추구하는 WCC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세계적인 기구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을 인간적인 시도로 보았고, 혁명주의자들이 기존 세계질서를 총체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실현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판넨베르그는 인간의 노력이란 온전한 평화와 최종의 자유를 경험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파편적인 부분목표들(fragmentarische Teilziele)만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하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계속>



▲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병원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전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오랜 시간 비염과
코 막힘으로 냄새도 못 막는 환자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 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다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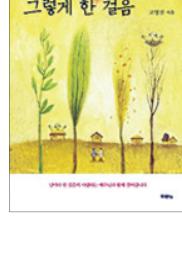


신간추천

그래, 그렇게 한 걸음

고명진 | 두란노서원 | 2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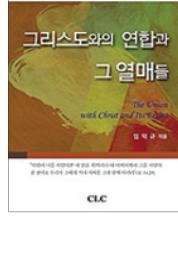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책. 영성 깊은 그림과 실감나는 예화를 곁들여 지식이 아닌 마음의 묵상으로,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한 걸음을 떼게 도와준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33가지 묵상으로 이뤄져 있으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함께했다. 1부 비우기와 2부 채우기, 3부 그리고, 예수님처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열매들

임덕규 | 기독교문서선교회 | 296쪽

저자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시리즈이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신자의 구원이 시작되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구원의 핵심 진리라고 전한다. 또 이 책은 부록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첨가해 줌으로써, 참된 은혜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존 스토퍼 | IVP | 144쪽

1980년 영국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 의대생을 위한 국제 대회>에서 존 스토퍼 목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전했던 강연집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인격과 소명, 참여와 윤리, 선교 등 다섯 가지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 요소들이 '훈련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근원적 부르심'이라는 것. 이 책은 스토퍼의 강의 중 유일하게 한국어로만 출판된 것이다.



영적 싸움

브라이언 보그먼 외 | 생명의말씀사 | 216쪽

정교도의 전통을 계승한 젊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신자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예배 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싸움과 현실을 성경에 근거해 올바르게 이해시킨 다음, 영적 싸움을 과소 평가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는 오류를 피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알려준다.



REVIEW

"묘목 아니었던 거목 없지만 … 모두 거목 되진 않아"

김남준 목사가 말하는 '부교역자 사역론'

누구나 담임목사를 꿈꾸지만, 대부분 부목사부터 시작한다. 그게 현실이다. 부교역자 시절은 '훈련'으로 통용되지만, 체계적 매뉴얼도 없고 이에 대해 가르쳐 주는 곳도 없다. 심방과 교회학교를 맡으면서 담임목회를 간접 체험한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금씩 '변아웃'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아니, 부교역자를 하며 신학교에서부터 입학 당시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다.

저자는 그래서 "묘목이 아니었던 거목은 없다"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묘목이 거목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덧붙인다. 더 많은 묘목들이 분자처럼 되거나 관



김남준 목사

목들 속에 섞여 자라다 나무로서의 일생을 마치기도 한다는 것. "모든 목회자가 한때는 미숙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 말씀으로 많은 교인들에게 감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까지,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발자취가 있어야 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를 비롯해 신학생과 목회자 지망생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온 저자는, '목

회를 배우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부제로 책에서 교회학교 사역, 청년교구 사역, 장년교구 사역, 여성교구 사역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필요한 덕목과 태도를 따뜻한 필체로 전하고 있다. 곳곳에서 '사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저서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가 오버랩된다.

책 내용은 저자가 부교역자 부부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삶과 사역의 기술을 나눈 내용을 토대로 했다. 사역 분야와 기준·독신 여부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눠 모이게 한 후, 책망이나 질책의 감정 없이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계하듯 바른 목회를 위한 사역의 실천 등에



부교역자 리바이벌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232쪽

대해 가르쳤다고 한다. 그들이 동역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고용된 일꾼

처럼 생각했던 일과 사랑으로 그들의 히물들 덮고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이다.

"제가 여기에 '리바이벌'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부교역자가 교회의 리바이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참으로 능력있고 좋은 목회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의 심령에 부흥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작은 책이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교회를 좀 더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대웅 기자

사랑, 섬김, 나눔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프로젝트 <올투게더 All-together>

<올투게더 All-together>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고동락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컴퓨터/영어/스페인어/포토샵 무료교육

교육일시 11월 1일-12월 24일 / 등록기간 10월 30일까지

✓ 등록비, 교육비, 교재비 일체 무료

한인교회 천로장로교회와 라틴교회 Iglesia Gracia교회가 후원

교/육/과/목

컴퓨터/인터넷

- 모집정원 10명
- 오후 2:00-3:30 (토)

영어

- 모집정원 10명
- 오후 2:00-3:30 (토)

스페인어

- 모집정원 10명
- 오후 3:30-5:00 (토)

포토샵

- 모집정원 10명
- 오후 3:30-5:00 (토)

모/집/대/상

LA와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 고아, 이혼가정 자녀, 홀사모, 싱글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우선 혜택

* 신청자에 한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갖고, 이후 수강 가능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213-509-3779

www.pilgrimla.org / email: shnoh3927@gmail.com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베들레헴대 교환학생의 팔레스타인 르포

무슬림들의 땅이 된 성지 베들레헴, 그곳에서의 6개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인 '유다 땅' 베들레헴은 지금, 하루 다섯 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무슬림들의 땅이 됐다. 이스라엘 영토도 아니다. 한때 그 '성지'에 90%에 달했다던 기독교인들은 지금 28%밖에 남아있지 않다. 르포 에세이 <베들레헴은 지금>을 쓴 이는 순전히 '색다른 경험'을 꿈꾸며 베들레헴대학교 교환학생에 지원한, 스물두 살의 크리스천 남자 대학생이다. 대학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양떼가 풀을 뜯는 목가적 풍경을 상상하고 당도했지만, 첫날부터 환상은 깨졌다. 그를 맞이한 것은 자동차 매연과 허잡을 쓴 여학생들, 그리고 북적대는 시장이었다. 전형적 아랍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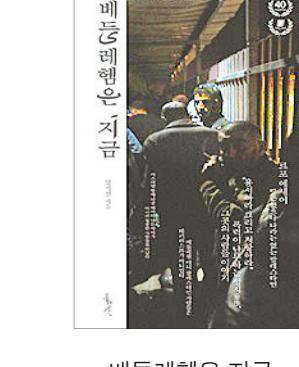
그래도 베들레헴에 왔으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자는 전 세계 성지순례객단과 관광객들이 사모하는 '탄생교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살게 됐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기쁨에 차서 몇 번씩 그곳을 방

문했다.

하지만 곧 시큰둥해졌다. 집 가까이에 있어서인지 그곳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몇 번씩 방문하다 보니, '인공적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불쑥 올라왔다. '평범한 마구간이었다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라고 생각하다가도 '마구간만 있었다면 참 허술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탄생교회를 들을 때마다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탄생교회 광장 맞은편, 거대한 모스크에서 나오는 아랍어 기도 소리는 그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떠나기 전엔 자신의 말처럼 '절 없고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나온 후에는 이렇게 고백한다. "베들레헴에서 공부하던 하루하루는 제 눈을 뜨게 했고, 몰랐던 사실을 가르쳤고, 편견을 부수며 제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용서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분쟁과 장벽, 공습 같은 심각한



베들레헴은 지금
양기선 | 흥성사 | 304쪽

장면부터, 대학 생활과 친구 이야기까지 저자는 꼼꼼한 기록과 다양한 사진들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글을 시작하기 전, '팔레스타인 아랍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각각 서술해주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이 쌓였지만, 주말에 이스라엘 땅에 나가 선량한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그는 말한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변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적의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았다면, 혹은 유대인들이 중동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의 죽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신문의 국제란에 종종 등장한다. 최근에도 양측은 가자 지구에서 50일간 교전을 벌이며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역 만리인 이곳에서 접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과편화돼 있고 글자 자체로 그치는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저자도 말한다. "직접 그 땅을 방문해 현실과 얼굴을 마주하고 삶을 맞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별 감흥과 열정을 느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거주지를 나누고 있는 장벽. 그 한쪽엔 고형원의 '보리라' 가사도 보인다. ©흥성사
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최소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 땅의 평화와 용서, 그리고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이대웅 기자

"전도가 초대라면, 변증은 대화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은, 이 시대 가장 뛰어난 변증가 중 한 사람이 쓴 '변증학 입문 및 실전편'이다.

'구도자들과 회의자들이 진리를 찾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How to Help Seekers and Skeptics Find Faith)'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변증에 대해 살피고, 변증에 필요한 여러 주제들과 그 방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사례연구도 시도하며, '자신만의 변증방식 개발하기'를 도전한다. 저자가 말하는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변호하고, 그것을 비기독교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일이다.

저자는 변증의 목적을 '교회 밖 사람들이 눈을 떠서 기독교 신앙의 실제와 신빙성과 적합성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힌다. 변증이 '교회 밖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포되는 메시지와 메시지 선포자의 어조는 조화를 이뤄야 하고, 변증가는 호감을 사고 너그러우며 자애로워야 한다.

변증학의 기본주제에 대해선 복음에 대한 반대나 어려움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응하며 신앙을 가

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돋는 변호하기(defending), 인간의 처지를 바꾸는 기독교 신앙의 잠재력을 알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이 주는 흥분과 경이를 전달하는 권하기 (commending),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을 외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변역하기(translating)로 요약한다.

무엇보다 '변증학을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정의이다. "변증학이 대화라면, 전도는 초대다." 변증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좀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는 것. 변증학은 전도가 아니지만, 전도가 빠진 변증학은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전도가 빵을 건네는 일이라면, 변증학은 '저기 빵이 있으며 그 빵이 맛있다'고 납득시키는 일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일 이유도, 부담도 없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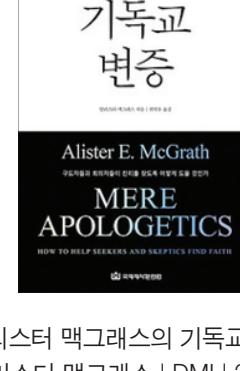
<만들어진 신>의 도킨스류(類)

'신무신론(新無神論)'과 획일주의를 거부하는 '다원주의'가 팽배한

21세기의 변증에 대해, 저자는 기

독교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에도

대체로 잘 대응해 왔고, 포스트모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기독교 변증
알리스터 맥그래스 | DMI | 340쪽

더니즘의 발흥(發興)에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킨다.

다만 2천년 기독교 역사 중, 모더니즘 이전의 변증학 전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응전'할 자원이 충분하나, 단지 수 세대 동안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이해하고 △정중을 이해하며 △명쾌하게 전달하고 △접속점을 찾으며 △온전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실천하고 실천하고 실천하라"고 권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변증 초보자'

들에게, 정답이나 매뉴얼을 찾으려 하기보다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믿음에 관한 질문과 관심은 문화에 따라 다르고, 각 사람에게 처한 상황도 모두 다르며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변증가는 질문을 경청해야 하고 질문에 몰입해야 한다. 그러면 적응력이 생기고 자신만의 '모범' 답안을 작성 할 수 있다.

'변증학'이란 용어가 파생된 것은 그리스어 '아풀로기아(apologia)'로, 이는 변호(defense), 즉 '법정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는 논리 정연한 주장 또는 논증이나 신념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을 말한다.

이 단어는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이 이 구절을 성경에서 변증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고전적인 구절로 본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logos)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apologia)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보기에 변증이란, 진리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변호하는 일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 그것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책의 원제는 그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전기를 쓰기도 했던 '선배 변증가' C. S. 루이스(Lewis)의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를 오마주(?)한 'Mere Apologetics'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회한한 옷!!

너무 쇠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킥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빌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제이피한자 승문기 박사
UCLA와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민과 크롬으로
의약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시험
결과 최소한의 부작용과 높은 치료율을
효과로 개선됨을 확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번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민이 부족하면
췌장비타민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비타민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정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터울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정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당뇨인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던 그쳤으나
PRO-Z는 위험에 인슐린 분비를 확장해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정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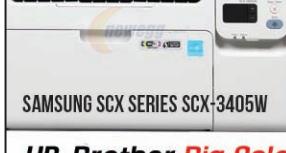
단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기능 개선제

PRO-Z

1병 \$76
3병 \$200
6병 \$372

TONER 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증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K 법무사
사무소

소장:Kenny Oh

번역 (학술/사업/개인)

민사법

계약법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법적 해결

(323)377-5702 ko7law@gmail.com

법정통역, 소송, 방어, 어서류

법원, 의도, 과실, 사기, 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 소송, 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법률 문서 작성, 분석, 분쟁, 수금 문제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짐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 (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BFJ1090) 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전 안

714-667-0728 (영어)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가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룰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ifff Ave,
Lancaster, CA 9353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느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A-1 정비

오일 교환

76

엔진 & 미션 전문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 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 예방

3달분 \$60

배빠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Genesis 2015

ALL NEW 2015 GENESIS SEDAN

“미국 내 자유주의 교회는 급감, 복음주의 교회만 성장 추세”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한영이중언어 과정 담당자 안상희 교수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GGBTS,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인근 밀밸리에 위치한 본교를 매각하고 남가주 온타리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GBTS는 남침례회(SBC)에 소속된 6개 신학교 중 하나로, 북가주, 남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애리조나 주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분교는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며 도서관 자료도 하루 이틀 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본교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영이중언어 과정을 제공하는 남가주 분교에는 한인 1세 교수 1명, 한인 1.5세·2세 교수 3명, 한국에서 20년 이상 선교해 한국어에 유창한 백인 교수 등 한국어가 가능한 전임교수가 총 5명이 있다. 이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강사로 섭진다.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선교학 석사, 신학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재학생은 영어 과정 150명과 이중언어 과정 50명, 총 200명이 있다.

남가주 분교의 한영이중언어 과정 담당자인 안상희 교수는 교회가 회소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부의 바이블벨트”라 불리는 남가주 지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게 되면 이곳의 여러 지역교회와 협력해 신학생들이 학업과 동시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온타리오가 속한 LA동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한 연구에서 향후 20년 간 미국 전체 도시 중 인구 증가가 2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이 연구 결과처럼 사람이 많이 유입된다면 그들을 목회할 교회들도 필요해질 것이다.”

또 새로운 캠퍼스인 만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원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캠퍼스가 이전되면 첨단교육 시설을 도입해 훨씬 더 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신학 교육과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시도가 이뤄질 것이다. 또, 앞으로 원격교육이 중요해지며, 수요자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원격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급감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교회만 성장해

한편, GGBTS의 이전 소식은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가 호시탐탐 교회로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 세상의 변화에 물들지 않은 바른 신앙을 수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안 교수는 워싱턴주립대학의 제임스 웰만(James Wellman) 교수가 『복음주의 대 자유주의(Evangelical vs. Liberal: The Clash of Christian Cultures in the Pacific Northwest)』라는 책에서 지적한 미국 북서부 지역의 자유주의 급감과 복음주의 성장 현상을 언급했다.

“이 책에 따르면 북미에서 자유주의 교회는 급감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는 성장 추세다. 사회 전체를 보면 복음주의보다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두드러진다. 문제는 자유주의화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보수적인 이들만 교회에 남게 된다.”

그는 GGBTS가 표방하는 보수주의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고 외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른다. 자유주의 혹은 진보주의는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맞춰 신앙을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수주의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본다. 세상적 가치에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성경을 따라와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자도 복음 들으면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묻자 그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 도전은 패배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적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정교한 논리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나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지고 있다. 한편, 미디어가 종교다원주의를 유포해도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 중생을 체험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무신론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변한다.”

안 교수는 복음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은 진보주의, 자유주의나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세속주의

라고 주장했다. 세속주의는 복음에

대한 관심 자체를 말살해 버린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부요한 세상에 살면서 생생한 복음이 아니라 너무 편한 복음만 받아들였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오히려 열정이 뜨거웠는데 부유해지면서 신앙의 힘과 열정을 상실했다. 우리 자체도 많이 변질된 것이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세상적인 안락함을 많이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면서 지적으로 정직하며 바른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독교 안에서도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 갈래로 나뉜다. ‘과학의 합리적인 언어와 성경의 영적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도 불가능하다’는 주장, ‘과학과 성경이 서로 배타적이며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 ‘과학과 기독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그는 과학적 설명이나 이론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위에 둔다고 답했다.

“성경이 과학 교과서도,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쓴 책도 아니라고 본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란 문제와 달라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믿어야 있다. 하나님에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신다고 믿는다. 보수적인 사람들을 닫혔다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한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오히려 편협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에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믿는 게 오히려 열린 태도가 아닐까?”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무신론

때로 이러한 성경해석으로 보수주의 기독교는 전투적인 무신론 과학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이 보수주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종교의 폭력성’이다.

“10년 안팎으로 리차드 도킨스를 필두로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이 대두했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보수주의자들을 ‘근본주의’라 부르며 종교가 근본주의가 되면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이슬람의 테러리



안상희 교수

스트라든지 보수적인 기독교인을 주로 공격한다. 이들은 보수적 기독교인 역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가치관이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적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교리나 ‘당신은 지옥간다’ 같은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폭력적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였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이 그 예다. 그렇다고 ‘무신론은 폭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성향이라고 봐야지 ‘무신론은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보수화되면 폭력적이 된다’는 말도 논리적 비약이다.”

교리 논쟁보다 신앙 본질 집중해야

그러나 그는 세속주의와 무신론 과학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데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잊게 되며 그로 인해 청년들 미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속적 가치보다 우월한 논증을 제시한다고 해서 청년들을 교회에 불들어 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게 더 시급하다. 젊은이들은 체계로서의 종교, 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실재가 중요하다. 진보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주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며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교회에 남는 비율도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에게는 교리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칫 잘못해 복음주의 교회가 세속적 가치와 계속 전투만 하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막해지고 이보다 본질적인 구원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젊은 세대를 잊어버리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 교수는 “앞으로 골든게이트 본교가 남가주로 이전하게 되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한인사회를 섭기게 될 것이다. 남가주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를 섭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 주디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간경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경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틀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깁지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빠들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빼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둑!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간경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불임증, 간경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탕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전증기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된 분

▶ 자긋자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3523 W. Olympic Blve. #102
Los Angeles, CA 90019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북미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2015
HYUNDAI GENESIS
SEDAN 3.8L

MODEL# B1402R65

\$388 +TAX
36 Mon.

MSRP: \$39,105, 36-MONTH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 \$1,0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NEW 2014
HYUNDAI EQUUS
SIGNATURE' DEMO'

MODEL# E 0422R85

\$488 +TAX
36 Mon.

MSRP: \$62,170, 36-MONTH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LEASE SIGNING + \$2,750 LEASE CASH +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 CENTS IN
EXCESS OF 12,000 MILE/YEAR, ON APPROVED CREDIT.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